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6/22~06/28

1.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
2. 페덱스 관세 환급 개시 및 물류 영향
3. 미국 항만 투자 및 니어쇼어링 동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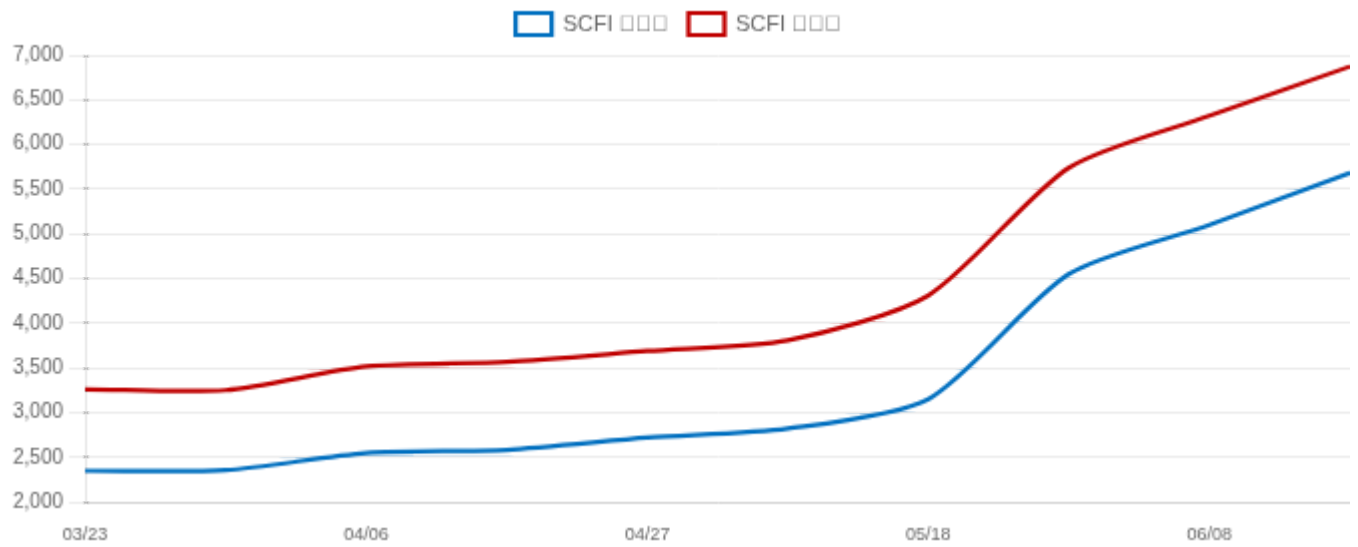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에서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와 페덱스의 관세 환급 지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각됨.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규제 준수 부담과 물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전망이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는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지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련 업종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 반면, 항만 인프라 투자와 니어쇼어링은 장기적으로 미주 내 물류 효율성을 높여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5,683 \$/FEU	06/15	+11.4%	+80.2%
SCFI 미동안	6,873 \$/FEU	06/15	+8.7%	+59.4%
KCCI 미서안	5,729	06/22	+17.1%	+82.7%
KCCI 미동안	6,832	06/22	+13.8%	+60.5%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6/15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 강화

미국이 Section 232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면서, 기업들은 상세 생산 기록과 공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승인을 하락과 지연이 예상된다.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신청 절차를 강화, 기업들은 생산공정, 원산지 증명 등 상세 기록을 제출해야 함. 이는 기존 면제 갱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행정 부담이 증가함.

신규 면제를 받으려면 미국 내 생산시설 신설·확장 계획과 공증 서류를 제출하고, 상무부가 설정한 이정표를 준수해야 함. 조건 미충족 시 면제 취소 및 소급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가 큼.

관세 면제 승인 지연은 대미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관세 부담으로 작용하며, 포워더는 고객의 관세 비용 변동 리스크를 안내해야 함. 특히 한국 기업은 면제 신청 부담 증가와 승인 지연에 직면함.

캐나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의 5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절차도 강화되어, 제조사들은 전례 없는 기록·추적 체계 구축이 필요함. 통합 공급망을 가진 기업에 유리하나 불확실성이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 면제 신청 시 생산공정, 원산지 증명 등 상세 기록 제출 의무화
- 신규 면제는 미국 내 증설 계획과 공증 서류, 이정표 준수 필요
- 조건 미충족 시 관세 면제 취소 및 소급 관세 부과 가능
- 캐나다·멕시코산 50% 관세 인하 절차도 강화, 기록적 심사량 발생
- 종단간 추적과 회계 장부 일치기 필수, 관세사 선정 중요

전망

관세 면제 승인을 하락과 지연이 지속될 전망. 불확실성이 커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단기간 내 면제를 받지 못한 기업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것임.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증설을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관세 면제 지연 시 직접 관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청 서류를 조속히 준비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를 검토해야 함.

포워더 — 고객의 관세 비용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하고, 기록 관리 및 관세사 선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항만·선사 — 관세 면제 강화로 철강·알루미늄 화물 물동량 변동 가능성에 대비, 수요 예측 및 운영 계획을 조정해야 함.

페덱스 관세 환급 개시 및 물류 영향

FedEx가 8월부터 IEEPA 관세 환급금 8억달러를 고객에게 지급 개시하나, 환급 대상 건이 2000만건 이상에 달해 절차 지연과 데이터 불완전성이 예상됨.

FedEx는 8월부터 미국 정부가 폐지한 IEEPA 관세에 대한 환급금을 고객에게 돌려주기 시작함. FedEx는 지난 5월부터 환급금을 수령해 왔으며, 환급 규모는 8억달러에 달함.

환급 지연 원인은 방대한 물량과 시스템 한계 때문임. FedEx는 현재 2000만건 이상의 IEEPA 관세 적용 건을 관리 중이며, 미국 재무부의 순차적 송금과 CBP 1단계 시스템의 80일 이내 청산 건 처리 제한으로 인해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됨.

FedEx는 개별 고객별 환급 내역 보고서를 제공하지 못하며, 이는 데이터 불완전성 때문임. 7월 10일까지 선적 건별 환급 확인 포털을 개설하고,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화주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는 고객은 환급까지 더 오랜 시간 소요됨.

경쟁사 UPS와 DHL도 유사한 환급 절차를 진행 중임. UPS는 5억달러 미만 환급금을 수령 즉시 고객에게 돌려주되, 먼저 미수금에 적용 후 잔액을 60~90일 내 지급. DHL은 수령 후 30~90일 내 지급하며 미국 고객에게 수표 발행.

- FedEx 환급 규모: 8억달러 (800백만달러)
- FedEx 관리 건수: 2000만건 이상의 IEEPA 관세 적용 건
- FedEx 환급 시작일: 8월, 포털 개설일: 7월 10일
- UPS 환급 규모: 5억달러 미만, 적격 건 250만건
- DHL 환급 소요 기간: 30~90일

전망

FedEx의 환급 절차는 데이터 불완전성과 시스템 한계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전망. 데이터 공유 여부에 따라 화주별 환급 시기가 차별화되며, UPS와 DHL도 유사한 지연이 예상됨. 전반적으로 물류 비용 환급이 지연되면서 화주들의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데이터 공유 여부가 환급 속도를 결정하므로, 포털을 통한 데이터 제공 우선 검토 필요.

포워드 — 고객 데이터 공유를 중개하거나 환급 절차 컨설팅을 제공해 부가 서비스 기회 확보 가능.

항만·선사 — 직접적 환급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화주 현금 흐름 악화가 장기적으로 물동량에 부정적 영향 줄 수 있음.

미국 항만 투자 및 니어쇼어링 동향

미국 주요 항만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잇따르며 니어쇼어링과 연계된 물류 역량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글로벌 항만 운영사 DP World가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추진 중임. 이는 미국 걸프 연안의 무역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장기 임대차 계약을 위한 독점 협상권 계약을 체결함. DP World는 신규 터미널의 설계·건설·운영을 전담해 걸프 연안의 컨테이너 처리 용량을 확대하고 공급망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임.

버지니아항은 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한 수심 준설 프로젝트를 완료해 미국 동해안에서 가장 깊은 상업용 선박 통로를 확보함. 이를 통해 대서양 무역로의 최대 컨테이너선이 만재 상태로 통항 가능해졌으며, 농업·임산물 수출 증대와 운송비 절감 효과가 기대됨. 이는 2023년 시작된 게이트웨이 투자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임.

니어쇼어링 수요 증가로 멕시코 물류 시장도 확장 중임. Echo Global Logistics는 멕시코 국내 운송 서비스를 신규 도입해 미-멕시코 국경을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함. DP World는 이전에도 멕시코에서 미국-캐나다항 철도 인터모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어, 북미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 확장이 지속됨.

미국 항만 투자는 니어쇼어링에 따른 화물 흐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걸프 연안과 동해안의 항만 현대화는 아시아-미국 간 무역 경로 재편을 촉진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기업들의 니어쇼어링 전략과 맞물려 물류 허브 경쟁이 심화됨.

- DP World, 코퍼스크리스티항 컨테이너 터미널 독점 협상권 계약 체결
- 버지니아항, 4억5000만 달러 수심 준설 완료...동해안 최심 항로 확보
- Echo Global Logistics, 멕시코 국내 운송 서비스 추가...통합 물류 확대
- DP World, 2024년 멕시코~캐나다 철도 인터모달 서비스 개시
- 미국 항만 투자, 니어쇼어링 물류 수요 대응 차원

전망

미국 항만 인프라 투자는 니어쇼어링 추세와 맞물려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걸프 연안과 동해안 항만의 역량 강화로 아시아발 화물의 우회 경로가 늘어나고,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 지역 내 물류 네트워크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미국 항만 효율성 향상과 멕시코 물류 옵션 확대로 공급망 다변화 가능성이 높아짐.

포워드 — 미-멕시코 국경 물류 통합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비한 역량 강화 필요.

항만·선사 — 걸프 연안과 동해안 항만 간 경쟁 심화로 선석 확보 전략 중요해짐.